광주환경공단 '1일 명예소장제' 호응

7년째 시민 130명 체험
"환경기초시설 이해 기회"
3월12일~23일 신청 접수

지난해 광주환경공단 '1일 명예소장제' 임명장 수여식(왼쪽)과 1일 소장이 환경시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광주환경공단 제공〉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일 명예소장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1일 명예소장제' 운영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7년째이며, 그동안 총 54회를 운영하여 130명의 명예소장이 광주환경공단을 다녀갔으며 지난해에는 총 30회(30명) 운영됐다.

지난해 참여한 명예소장은 일반 시민이 13명, 사회단체에 속한 시민이 17명이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자영업, 주부, 퇴직한 공무원, 장애인 돌보미 등이었다. 대한노인회, 요양보호사협의회, 광주전남숲해설가 협회, 시민공동체 등 사회단체에 속한 사회운동가가 참여했다.

1일 명예소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환경기초시설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에서는 광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 음식물쓰레기, 생활(일반)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가축들의 오폐수나 의료폐기물, 건축폐기물 등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시설에서 처리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1일 명예소장제는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기초시설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창의와 혁신의 기업문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올 해도 1일 명예소장을 뽑는다.

1일 명예소장은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명예소장으로 선정된 시민은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광역위생매립장 등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명예소장이 된다.

또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 또는 폐기물 처리 현장을 체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또는 가까운 공단 사업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kys@eco-g.go.kr)로 신청서와 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공단은 1일 명예소장제 신청자 40여명을 우선 선발해 오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선발된 1일 명예소장은 사업소별로 일정을 확정한 후 1일 명예소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市, 내년 시민제안사업 4월22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사업'을 12일부터 4월22일까지 42일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5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일자리경제, 전략산업, 교통건설, 일반행정(인권, 안전, 주민자치 등) 등 시정 전반을 8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다만, 특정 자치구 민원성사업, 특정단체사업, 도로포장, 시설 개·보수, CCTV 설치 등 SOC사업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재정예산정보의 '시민참여예산제-사업신청'에 접수하거나 시 예산정책관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관련 전문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협치로 컨설팅을 통해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해 8월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11월중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채택된 제안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추진 상황을 정기 모니터링한 후 우수 평가를 받은 제안자에게는 포상(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사회복지 인력지원센터' 운영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총 11명의 인력과 국비를 포함해 연간 2억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센터는 직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병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1회 5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대체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은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도 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지회(협회장 김동수)와 사업계약을 지난 2월에 체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주민센터 등 무료 열람

광주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18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지방세 개요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등으로 구성, 지방세의 편리한 납부방법과 시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내용도 담았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 2018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관한 내용 등도 볼 수 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 자율방재단 전문교육·워크숍 개최

광주시가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구호활동을 맡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8일 " 방재 단원의 의식 개혁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구호분야 전문교육과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재단 신규회원 가입, 자치구 자율방재단 단장·부단장 임원진의 조속한 선정 등을 권고했다.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조직의 일체감을 다지고 '안전한 광주' 실현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재난 취약지역 예찰활동도 병행할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관 및 시장표창 등 포상도 수여하고,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듣기로 했다. 최근 조례를 개정, 자치구와 협의해 회원들의 교육, 워크숍, 현지 응급복구 지원 시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으로 구성되고, 지역자율방재단 회원은 14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 방재조직이다. 그동안 청주 집중호우와 포항 지진 등 전국 재난현장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광주'를 알리는데 기여해왔다. 폭염 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마을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안전점검을 하고, 골목길 제설작업, 내 집 앞 눈 쓸기 등 '안전한 광주' 정착에 노력해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일곡·운암도서관서 하루 종일 독서 삼매경

내일 독서토론·음악회 등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세요.'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곡·운암도서관에서 유아, 초등학생 및 성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9회 도서관에서 독(讀)한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읽을 책은 독서단체 및 독서회의 추천을 받아 ▲초등부 '책이 사라진 날' 등 8종 ▲성인부 '천강에 비친 달' 등 2종 ▲가족유아부 '소중한 하루' 등 3종으로 총 14종의 도서를 선정했다.

일곡·운암 도서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일곡도서관 8개팀, 운암도서관 4개팀으로 구성, 유아부터 성인까지 총 12개 팀이 선정도서를 자유롭게 읽고 독서리더와 함께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일곡도서관 동아리팀이 나서 기타 앙상블, 플루트 협주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깨알 음악회'를 진행하며,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가족유아팀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놀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책놀이 프로그램 '액자 꾸미기', '리딩보드' 등 가족강좌를 마련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빅마마' 이혜정의 꿈 이야기
오늘 동구아카데미 개최

광주시 동구는 "9일 오후 3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제223회 동구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동구아카데미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혜정〈사진〉 강사를 초청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강사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유명 요리학교를 수료하고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인 황혜성 선생에게 궁중음식을 사사받은 요리연구가다. 현재 퓨전한식 레스토랑 '키친네트'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과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평범한 주부에서 유명 요리연구가가 되기까지의 일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062-608-23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골목·상가 밀집지역 방범용CCTV 36대 설치

광주시 동구가 주민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나선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거점과 범죄 우범지역 등 15개곳에 36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한다.

좁은 골목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동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CCTV설치 건의가 이어졌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지난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39개소 8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동구는 주민들의 건의지역 및 범죄발생률이 높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동구는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월 현재 158개소 32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동구는 이번 CCTV 확충으로 모두 173개소 356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갖추게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기투자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010-3605-5000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